

기고

류시범 함평경찰서 교통관리계장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어느덧 거리에는 짧은 반팔 옷 치림의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며, 전국 도처에는 울긋불긋한 오색빛깔의 찬란한 단풍이 자태를 뽐내고 있어 이를 구경하려는 많은 행락객들이 봄비는 계절이 돌아왔다. 한편, 우리 소방관서에 있어서

이 시기는 조금 특별하게 다가온다.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11월 한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전국적인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더불어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속으로 공유·소통하는

화재예방 환경조성을 목표로 홍보콘텐츠·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화재예방홍보, 연령별·유형별 체험위주의 소방안전교육, 불조심 작품모집·119안전뉴스 경진대회·소화기 갖기 운동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내실을 기하고 있다.

겨울철의 문턱인 11월부터는 이상기온 및 계절적인 특성으로 인해 난방용품 등 화기사용과 실내 활동이 많은만큼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특히, 화재 원인 중 불티, 아궁이, 용접, 화기 취급 등 부주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서 개인의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여부가 화재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2019년 불조심 강조의 달 슬로건으로 '비위요 소방도로! 채워요 안전의식!'이라는 문구가 선정된 만큼, 화재예방을 위한 작은 노력이 안전을 만들고 행복을 이루게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생활속에서 안전을 실천하여 행복한 겨울나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社 說

전남 산업구조 개편해야

전남의 개인소득이 전국 16개 시·도 중 18년째 꼴찌라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듯 싶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전남지역 농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리 만무하다. 부의 집중이 가속화하고 소득이 낮은 집단은 더욱 소득 창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전남이 농도라고는 하지만 산업을 재편하는 등의 조치가 벌써 마련돼 시행됐어야 했다. 목소리가 비등해 가는 이이다.

두 번째로 낮은 저소득이 저소득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악순환에 빠져 있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본사나 단독업체 비중이 작고, 공장이나 사업체 입지 비중이 커 지역 소득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전남은 원재료를 생산해 중간재로 판매하는 산업구조로 생산소득이 높더라도 소득이 유출돼 지역 소득은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 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후방산업들을 유치해 파급효과를 높이도록 지역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전남의 개인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사정을 방관하지 말고 지역산업 재편을 통한 소득증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사정을 방관하지 말고 지역산업 재편을 통한 소득증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사정을 방관하지 말고 지역산업 재편을 통한 소득증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불조심 강조의 달, 화재예방 시민과 함께 해야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게 변해 본격적인 화기취급의 증가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불조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

겨울철은 기상여건 변화가 심하고 난방기구의 취급 증가로 화재 발생이 많은 만큼 생활하는 건축물 등에서 각종 화기 취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소방관서에서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종합대책 추진 기간으로 설정하고 계절적 특성을 감안 화재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많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해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환경 조성과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사고와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전남소방본부는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비위요 소방도로! 채워요 안전의식!' 슬로건 아래 언론 캠페인 등을 활용하여 도민 공감형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119안전체험마당 운영, 어린이·청소년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119안전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방관서의 노력에도 화재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 스스로가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각종 화기 취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생활주변에 화재위험요인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다.

또 불조심 홍보물을 가정해 방화환경을 조성하고 내 가정, 내 직장에 전기·가스·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생활화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겠다.

한선근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인생의 단5분, 졸음운전 이제 그만

장거리 주행 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심심할게 크나큰 현수막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졸음운전의 중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겨우 졸음에 목숨을 거시켰습니까?' 등의 자극적인 플래카드 경고 문구이다. 이렇듯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들은 이를 간과하고 '조금만..조금만..' 하며 위험태로운 레이싱을 펼쳐 간다.

졸음운전의 상황은 운전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아주 잠깐 잠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그 잠깐의 시간이 3초로 파악되고 있는데 바로 이 3초 동안에 뇌가 잠에 빠지는 블랙아웃 현상을 겪게 된다고 한다. 블랙아웃이란 술을 마시다가 필름이 끊기는 듯한 현상을 말하는데, 졸음운전은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무방비 상태로 진입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졸음에 취하여 핸들을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내 가족은 물론 다른 이의 행복까지 풍비박산 낼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졸음운전 예방법으로는 운전을 하기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과 주행 중 창문을 수시로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 껌을 씹는 등의 행동 등이 있다. 그러나 이도 저도 되지 않는다면 가장 완벽한 예방법은 졸음쉼터 혹은 휴게소에서 잠시 눈을 붙인다거나 차에서 내려 스트레칭으로 긴장된 몸을 풀어주는 것이다.

선선해서 어디든 놀러가기 좋은 날씨이다. 인생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길에 5분만 더 사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보는 것을 어떠한가 싶다.

박철희 / 회산119안전센터 센터장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가심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광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경 호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